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

서거석 교육감, 군산서 학부모·교직원 470여명과 공감토크… 교육현안 논의

서거석 교육감이 11일 군산 지역 학부모·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군산대학교 웰니스홀에서 관내 학부모 및 교직원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특강을 통해 학력 신장 등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공감토크에서 △진로교육 △AI 디지털 교육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문제 개선 △군산 청소년 자치 배움터 ‘자몽’ 운영 △학부모 교육 확대 △특수학급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공감토크는 서 교육감이 14개 시·군을 방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익산, 군산에 이어 남원, 부안, 순창을 찾은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기틀을 닦은 기초학력 책임제를 바탕으로 올해 학력 신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11일 군산대학교 웰니스홀에서 군산 지역 학부모·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자원 미래 가치 창출 융합 교육체계 구축 ‘첫걸음’

전주대, 2024 인문사회융합 인재양성사업 융합캠프 참여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용욱)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융합캠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 8일 충남 스피러스 리움에서 열린 컨소시엄 출범식과 함께 11일까지 8개 컨소시엄의 40개 대학이 함께하는 HUSS 융합캠프에 교수 4명과 17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대학 간 교류와 관련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캠프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진행, 학생들은 인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해커톤에 참여하거나 우수강좌를 학과, 대학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수강했다. 학생 대표로 선서에 참여한 이진우 학생(일본어문화학과 3년)은 “여러 대학 학생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융합 강연을 비롯해 취업 집중 코칭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어 진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융합캠프에 참여했다. 사진은 융합캠프 공동성과 창출 MOU 체결식.

캠프에 앞서 신규 연합체 출범식이 진행됐다. 전주대를 포함한 올해 신규 선정된 3개 연합체(총 15개교)에 동판을 수여한 후, 전체 연합체 주관대학 총장이 모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융합 교육체계 구축 및 대학 공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교류 활성화, 사업성과 고도화 및 후발 대학 양성을 위한 성과 공유·확산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박진배 총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인문 사회 분야 최고의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지역 간 협력·공유 시스템을 비롯해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단장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학과 간 경계를 넘나들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2024학년도 G-SEED 진로탐색학점제 본격

지난해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과 역량 함양을 위해 처음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국립군산대학교 G-SEED(Global-SEED) 진로탐색학점제가 지난 9일 전문가를 초청 개별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24학년도 G-SEED 진로탐색학점제는 학과별 특색을 살린 주제로 총 18개 팀이 도전했으며, 세계(아시아, 오세아니아, 미국, 유럽)를 활동하며 다양한 학문적 환경과 교육체계 이해, 국제 네트워크 형성해 글로벌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군산대 G-SEED 진로탐색학점제에 최종 선정된 팀들은 학생과 교수가 한 팀을 이뤄 국제적인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세계적인 연구 방향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된다. 최종 선발이 완료되면 국내 활동 총 60시간 과정 전 사전 교육 활동과 진로 탐색을 위한 과정을 거친 후 해외로 출국해 총 30시간의 국외 활동을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학생해외진로문화탐방 진행

미래 진로 설계 기회 제공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장수지역 중 3학년 전체 학생 127명과 인솔교사 16명 총 143명은 전학년학기 1에 대한 자기 미래 진로 설계 기회 제공 및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체험중심 학생해외진로문화탐방을 8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날 유니버설스튜디오 자유관광 일정과 둘째날 Temasek Polytechnic 대학 방문 견학 및 진로특강과 진로체험활동 그리고 MAS Gallery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든스 바이더베이,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도슨트 투어, NUS대학교 유학생투어와 교수님 진로 특강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탐방은 타 시도에서 볼 수 없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만의 핵심 정책과제 예산 1억 5,000만원과 장수군 대응투자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이 투입되며 탐방 국가와 세부 일정 등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추영곤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탐방이 학생들에게 큰 의미와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장수군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폭넓은 시야와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인솔책임자인 서영민 교육지원과장은 추수 지도로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조별 소감 발표와 유튜브 동영상 제작해 홍보자료와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후 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세계 100위권 학문분야 육성 목표 달성 ‘청신호’

전북대, U.S News 평가 ‘화학공학·환경공학·고분자과학·물리화학’ 100위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U.S News가 발표한 ‘2024 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에서 4개 학문 분야가 세계 100위권에 랭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계 100여개 국가 2,2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 평판과 학술논문 수, 논문 인용 횟수, 상위 10% 및 상위 1% 논문 비율 등을 주요 지표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화학공학 분야가 세계 134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환경공학 156위, △고분자과학 169위, △물리화학 198위 등 4개 분야가 세계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순위에서도 화학공학이 국내 4위, 환경공학이 국내 5위, 고분자과학이 국내 8위, 물리화학이 국내 12위에 각각 랭크됐다. 4개 학문 분야 모두 거점국립대 중에선 단연 1위다. 이와 함께 응집물질물리학 분야가 241위, 재료과학 242위, 생명공학 및 응용미생물학 244위,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 260위 등 200위권에도 다수의 학문 분야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북대는 올 4월 발표된 글

로벌 대학평가기관 QS의 학문분야별 세계대학평가에서도 5개 대주제 중 자연과학, 공학·기술, 생명과학·의학 등 3개 분야가 순위권에 올랐다. 양오봉 총장은 “올해 실시된 2개의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전북대의 많은 학문분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학문분야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연구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거점국립대학의 책무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지역 특화 분야와 기초보호 학문 분야의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환경친화적 대학 만들기 노력 기울일 것”

박진배 전주대 총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챌린지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에서 제안해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흔쾌히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학 내 구성원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천하기로 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환경 의식을 더욱 높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친화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진배 총장은 다음 참여자로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을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유치원급식 운영 방향 의견 수렴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원)장 대상 학교급식 소통의 장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일 전주평화회전당 유학검출에서 학교(원)장 대상 학교급식 소통의 장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립·단립유치원장과 초·중·고·특수학교장 중 신청자 54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립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2024년 학교급식 정책 안내 △학교급식 운영의 실제(식생활관 현장의 조리과정과 위생관리 실태 중심) 등이다.

특히 사전 설문조사로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과 건의사항을 받아 소통의 시간에 논의하며 성숙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하고자 했다. 사전 제시된 의견으로는 △학교급식(급식운영 및 영양교육) 연구학교 운영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업무담당자의 객관적인 평가 실시 후 패널리 적용 △기숙학교의 조리원 초과근무 예산 지원 △식재료의 복수 검수 행·제정

적 지원 △조리실무사 연수(소양교육) 강화 △체식급식 의무화 제도 신설 △3식학교 급식기구의 내용연수 조정 △농어촌 3식학교 조리실무사 인력난 해결방안 마련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학교급식 청렴도 개선방안 △저탄소체식급식 운영 △학부모 인식개선 방안 △학교급식 만족도 개선방안 △학교급식 공모전 △3식학교 운영방안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등 주제별 키워드를 제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유치원 교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과 13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에서 유치원 교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통과 관계’를 주제로 박현창(다온마음미술리 상담센터) 소장의 강의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소통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튜브통합 정책 실현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이번 연수는 격차없는 영유아의 교육·보육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며 “학부모와 기관 내 교직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동물 결핵 역학적 분석 방역 정책·연구방향 제시

전북대 조호성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 수상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호성 교수가 ‘제34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조 교수는 국내 동물 결핵의 10년 간 추이 분석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이자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동물 결핵에 대한 역학적 분석을 통해 동물 결핵에 대한 방역 정책과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동물의 결핵이 지난 1964년 첫소의 결핵 검사를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관찰되지 않으며 국내 가축 결핵이 해마다 300마리 수준의 발병이 감소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한우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한우 결핵 검진의 의무화와 사슴 결핵의 검진의 중요성을 논문을 통해 강조했으며, 국내 동물결핵의 방역 정책 개선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호성 교수는 “동물 결핵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역학적 분석이 국내 동물결핵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물결핵 방역 정책의 개선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연구 수행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제시된 학교급식 정책과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개선·보완해 향후 학교급식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서동욱 직원

교육부장관 표창

우석대학교 서동욱(입학관리팀) 직원이 대입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입학 업무를 맡고 있는 서동욱 직원은 대학별 평가 운영과 함께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했다. 또한 고교 방문과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변경된 대입제도를 수험생과 교사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새로운 입시 제도 정착에 헌신했다.

서동욱 직원은 “함께 고생한 동료 직원과 모든 교직원이 도와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학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대입 전형의 이해와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